

관광공사 홍보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

캠페인 부문 '혁신어워즈' 수상

스페인 세비아 관광혁신서밋서

이날치·엠비규어스 '협업' 파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용자 자발적 참여 이끌어내 국악·현대무용 '주목' 계기

'범 내려온다' 주인공인 국악 기반의 팝밴드 '이날치'·현대무용 팀 '엠비규어스'가 협업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Feel the Rhythm of Korea)'가 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공사)는 지난달 25~27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관광혁신서밋'에서 디지털 캠페인 부문 '2020 관광혁신어워즈'를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 파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바이럴 마케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본선에서 바르셀로나 호텔그룹의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콜롬비아 보고타 컨벤션뷰로의 MICE 산업홍보용 디지털 캠페인을 제쳤다.

지난 7월 30일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에 처음 게재된 '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 영상은 조회수 3억건을 넘기며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명 나는 가락의 이날치와 중독성이 강한 춤을 보여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국



한국관광공사 해외홍보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내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된 장르로 통하는 국악, 현대무용 예술가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서울, 부산, 전주를 무대로 영상 3편이 먼저 공개됐고 인기에 힘 입어 인동, 강릉, 목포 등이 추가됐다.

장유현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는 파격성 외에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행 제한이 지속돼 크게 위축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방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해로 새롭게 개최를 시작한 국제회의인 관광혁신서밋은 세계관광기구(UNWTO), 세

계여행위원회(WTTC) 및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등이 후원한다.

올해엔 B2B 이벤트와 콘퍼런스 전문기업인 네백스트와 개최지인 세비아관광청이 주관했다. 고객 경험 부문에서 스페인 호텔그룹 이베로스타,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슬로베니아 기업 알투르(ARCTUR)가 수상했다.

생물권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 도시인 바르셀로나 관광청이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부문에서, 지방 및 인근 지역 관광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가능토록 한 네덜란드 아우맵(Our Mapp)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부문에서 수상했다. 오프라인에서는 16개국 1263명, 온라인에서는 46개국 3891명이 참가했다. /뉴스

전주 얼썩마루에서 '쇼! 쇼! 쇼!'

12일 무형유산원 송년 공연
네이버TV서 실시간 감상 가능
엠비규어스·추다해차지스
유희스카·연희점추리 등 출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전북 전주 얼썩마루 대공연장에서 송년 공연 '쇼쇼쇼'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 해의 공연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 공연을 열고 있다. 개원 이후 관객들에게 최고의 호응을 얻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활력을 주기 위한 공연을 마련했다.

혼성 민요 록(Rock) 밴드 '추다해차지스', '연희점추리 유희'와 '김스턴투디스카'가 만나 결성한 '유희스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연희예술 창작팀 '연희점(店)추리', 독특한 음악적 해석과 개성 넘치는 안무를 선보이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된다.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또 네이버TV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무료를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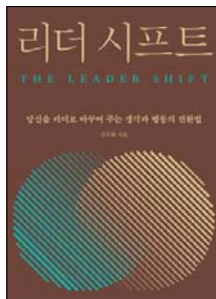
"일 계속 잘할테니 팀장만은 맡기지 말아주세요?"

리더십 코치 김무환 '리더 시프트' 출간
팀원에서 리더로 이행 위한 행동 양식

"지금 맡은 일 계속 잘할 테니 팀장만은 맡기지 마주세요."

기업과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를 기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리더가 되어 봤자 책임만 커지고 보상은 획기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십 코치인 저자 김무환은 이런 리더 포비아 현상 속 리더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리더가 됐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사람들, 리더로서 자신이 가는 방향이 옳은지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을 모았다. 그리고 저자는 이 고민과 질문에 격려와 함께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이 책을 엮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리더 포비아'를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려면 용기 있게 당장 '리더 시프트'를 실행하라고 제안한다.

'리더 시프트'는 팀원에서 리더로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다. 첫째, 리더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재정의하는 '마음가짐의 시프트', 둘째, 조직의 잘못된 소통 방식과 나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소통 방식의 시프트, 셋째, 결정하는 사람이란 자기규정을 바탕으로 책임 지고 사

안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방식의 시프트, 넷째, 구성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진 장점과 조직의 일을 연결해 주는 '사람 관리 방식의 시프트'다.

이 책에는 26년간 기업 실무경험과 오랫동안 리더십 코치로서 기업의 CEO, 임원, 팀장들과 고민하고 바꾸고 실행한 저자의 경험에서 우려난 체험담과 사례들, 회의 시나리오 준비법, 1대1 면담 디자인, 성과 면담의 준비, 리더의 질문법 등 실제 경영 현장에서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팁들로 가득하다. 256쪽, 허클베리박스, 1만6000원. /뉴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문화관광재단

SNS 콘텐츠 활용

도민과 소통 나서



1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통해 구독 인증 화면 캡처

댓글 게재... 결과 17일 확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중 뉴스레터 구독신청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일까지 홈페이지(www.jct.or.kr)를 통해 '마중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구독 인증 화면을 캡처해 블로그(blog.naver.com/jct2016)에 댓글을 게재하면 된다.

당첨 결과는 17일 재단 SNS 채널(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도민들이 재단 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SNS 콘텐츠를 활용해 도민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홍보팀(063-230-747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